

2019 새 설계

이 동 진 진도군수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총력… ‘진도 번영시대’ 열겠다”



“진도 번영시대를 열기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이동진 진도군수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육성, 그리고 인구 늘리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광, 농·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본과 기술력이 풍부한 대규모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 진도항과 고려조선소 부지, 아리랑 관광단지, 회동관광지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들을 속도감 있게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진도항은 2단계 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고 국제항으로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올해부터 차근차근 밑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기업과 대규모 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진도군 자산면 마사와 수양리 일대의 간척지 일부를 국제 여객·물류·관광·상업 지구로 확대 개발해 진도항을 중국과 동남아로 향하는 서남권 관문 항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자본 활용 진도국제항 개발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활성화
조도대교·한국화미술관 건립 추진

7월 개장 예정인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를 중심으로 진도군 곳곳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산업을 진도군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도군의 주요 산업인 농수산업은 가공과 판매,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상품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스마트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높은 소득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부흥시킨다는 목표다.

이 군수는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간척지 일원에 해상 양식·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남도와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안과 각종 문제를 해당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 주도형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섬을 지켜온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업에 전념하며 살 수 있도록 섬마을 정주 여건 개선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모든 마을에 CCTV와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민 건강복지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건강 체조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주력한다.

진도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신 성장동력이 될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현재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중인 조도대교와 가사대교 건설사업, 해안일주도로 국도 승격, 국립 한국화미술관 건립사업 등이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 정부에서 구상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번영하는 진도 인구 늘리기 총력
-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육성
- ▲국내·외 투자유치로 지역 경제활성화
-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 ▲농수산업 가공·판매 활동 지원 소득 증대
- ▲소통과 협력통해 군민 군정 참여 확대

서해 경제벨트에 진도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진도국제항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끝으로 이동진 진도군수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현안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해남딸기 ‘설향’ 동남아 5개국 첫 수출

30여 농가 생산 5t 분량 5월까지 베트남·태국 등 선적

땅끝 해남딸기가 동남아시아 첫 수출 길에 올랐다.

이번에 선적된 물량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5개국으로 수출된다.

땅끝 해남딸기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5t의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다.

군은 지역내 7ha의 면적에서 30여 농가가 국내육성 설향 품종을 육성 재배해 지난 12월 상순께부터 본격 출하하고 있다.

특히 수출 농가를 포함해 2.5ha에서는 고설베드, 차광, 양액 공급시스템 등을 갖춘 현대화된 수경재배를 통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딸기는 고소득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토경 재배에 따른 노동력 증가로 고령화된 농가에서 외면받아 왔으나 현대식

양액재배 방법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은 미국산 딸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높은 당도와 우수한 식감을 갖춘 국산 딸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군은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양액 재배시설, 응복합 ICT 및 현대화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또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물류비, 포장재 지원,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딸기뿐만 아니라 해남군 농특산물이 동남아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향후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명현관(맨 오른쪽) 해남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현산면 황순철씨 농장에서 ‘땅끝 해남딸기 첫 수출 선적식’이 열렸다. <해남군 제공>

진도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진도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올해 연말까지 지적 측량시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모든 종류의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1~3급) 등이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뢰인 사정으로 측량 취소 후 12개

월 이내 재의뢰 하는 경우 기존 공제 금액 감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타워·모노레일 등 모바일티켓 한장이면 관광 끝

‘완도 투어패스’ 연말까지 시범 운영

모바일티켓 한 장으로 하루 동안 완도 관광지 6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투어패스’가 출시됐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모바일티켓으로 완도지역 유료 관광지 6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완도 투어패스’ 상품을 개발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완도 투어패스는 하루(24시간)동안 사용 가능하며 가격은 대인 기준 정상가에서 45% 이상 할인된 9900원이다.

투어패스 구매는 10여 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여행 예약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할 수 있다.

패스권 사용이 가능한 관광지는 완도타

워, 청해포구 촬영장, 모노레일, 장보고기념관,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이며 읍선 상품으로 질라인 체험 할인권도 판매한다.

완도군은 향후 해양치유산업 유료체험 프로그램과 2021년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등을 완도의 유료 관광지들과 결합하는 등 방문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투어패스를 통해 완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섬지역 상품도 추가할 계획이다”며 “올해 시범 운영에 이어 내년부터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진도군, 출산 장려금 셋째아이부터 2000만원까지 지원 확대

진도군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1월 출생아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기준에는 출산 가정에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700만원 지원했다.

진도군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은 중단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는 가정에 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